

# “아시아 이야기, 세계에서 통할 문화콘텐츠로”

##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8〉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담

우즈베키스탄 = 윤영기 기자

‘아시아 문화원류를 찾아서’(우즈베키스탄 편)를 취재 중이던 광주일보 특별취재팀은 지난 4월 20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베루니 동방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취재진을 만난 석학들은 대담을 자청한 뒤 “아시아 전설·신화 등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아시아의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방학 연구소 미르자예브 무라미르 자에비치(언어·문학)·마마트쿨 줄라예프(민족언어학) 교수, 타쉬마토프 우라잘리 아브둘라카드리 문화대학교 민족학과장이 참석했다. 베루니 동방학연구소는 우즈베키스탄 신화·언어·문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재직, 연구하고 있는 최고 기관이다.

“아시아 이야기를 문화자원으로 만들려면? ▲줄라예프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 영웅 서사시 공동조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잘 알고 있다. 아시아 이야기를 영화, 연극, 게임 등 문화산업의 원천소재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안다.

각 나라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번역 작업이 정밀해야 한다. 신화·전설·민담 등이 각국의 독특한 언어로 수록돼 있어서다. 다국적 언어·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번역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언어의 느낌과 질감,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출판작업 등이 이뤄져야 한다.

▲무라미르 자에비치 = 중앙아시아 이야기를 영상물, 연극으로 만들어 무대에 올려야 한다. 시각 매체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 영상이나 연극으로 보면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들도 쉽게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작품보다는 지속적인 무대에 올려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라잘리 =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서 주최한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전세계에 아시아의 고유한 이야기와 언어, 문화를 알리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뜻깊은 사업이라 생각한다. 광주에 들어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

-21세기에 신화·전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무라미르 자에비치 = 신화나 전설, 설화에는



우즈베키스탄 언어·문학 교수들이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베루니 동방학 연구소’에서 아시아 신화·전설 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타쉬마토프 우라잘리 아브둘라카드리 문화대학교 민족학과장, 동방학 연구소 미르자예브 무라미르 자에비치, 마마트쿨 줄라예프 교수.

/우즈베키스탄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민족 고유정서 녹아 있는 신화·전설 재조명

### 영화·게임·출판 등으로 생명력 불어넣어야”

각 민족의 삶과 고유한 정서가 녹아 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신화·전설이다. 자취를 감춘 아름다운 옛말, 풍습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보고다. 옛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야기를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다. 신화, 전설, 민담 등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로 이뤄져 있다.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정신이 필요하다.

▲줄라예프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국가차원의 이야기 자원 보존책이 시행되고 있다. 을초부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구축되는 100가지 민담·설화 출판작업이 시작됐다. 국비지원으로 향후 10년 동안 옛 이야기를 채집·연구해 책으로 출간하게 된다. 알파미시는 라디오, 드라마 등을 통해 이

미 상업화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신화·설화의 역사가 깊은 만큼 관심을 갖고 진행한 연구자들도 많아 학문적 성과물이 적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신화·전설은?  
▲무라미르 자에비치 = 단연 알파미시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터키에도 알파미시 전설이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바흐시(구연자)를 통해 전해진 알파미시 이야기가 300여종이 넘는다. 주인공인 알파미시와 그의 약혼녀 바흐진 등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전개방식, 배경 등에 변화를 준 것들이다. 알파미시는 건국의 영웅이자,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고전이 알파미시다.

비슷한 ‘고루글리’도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를 죽이고,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모범적인 지도자상, 분열된 민족통일 등의 내용이 골자다. 주인공이 죽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 늑대의 보살핌으로 성장하는 토털도 있다.

▲줄라예프 = 옛 이야기인 알파미시가 인기 있는 것은 국민들의 꾸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한다. 지금도 수도 타슈켄트를 벗어난 시골지역 결혼식에서는 바흐시가 들려주는 신화·전설을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다.

알파미시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영웅서사시로 주인공 알파미시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민족을 통일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단기필마로 적대 부족의 진영에 들어가 약혼자를 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사랑과 전쟁, 우정 등을 다루고 있다.

/penfoot@kwangju.co.kr

### ■ 우즈베키스탄 구비문학 꽃피운 채록

### 알파미시 서사시·민담·설화 등 방대 사랑·동족애·주옥 같은 고연 수록

우즈베키스탄의 신화·전설 등 구비문학은 독특한 채록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베루니 동방학연구소는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영웅 ‘알파미시’ 서사시의 채록본을 가장 많이 소장한 곳이다. 연구소에 있는 알파미시 채록본은 우즈베키스탄에 현존하는 40개 중 30개에 달한다. 수장고 보관중인 민담·설화 채록본의 양도 방대하다.

광주일보 특별취재진을 안내한 이 연구소의 미르자예브 무라미르 자에비치(언어·문학) 교수는 흔쾌히 수장고를 열어 최고본(最古本)을 공개했다. 우즈베키스탄 신화·전설연구의 정점으로 통하는 그는 “언론에 문화재를 보관할 수장고를 공개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 채록본은 바흐시(구연자) 파브라울다시가 1927년~1928년에 걸쳐 두 달 동안 구술한 내용을 마흐무트 자리포프가 채록한 것으로, ‘알파미시’ 연구자들의 성경으로 통한다고 했다. 알파미시를 아랍어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이다.

전체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 권을 일반인이 낭송하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방대한 내용이다.

주인공 알파미시가 위기에 처한 동족과 정혼녀 바흐진을 구출한 후, 자신에게 닥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고 부족의 통일과 번영을 일구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다.

동족에 대한 열렬한 애정, 바흐진에 대한 지고한 사랑, 의형제 카라잔과 뜨거운 형제애, 초인적인 힘과 영특한 지력 등 알파미시는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이상으로 삼는 완벽한 인간의 자질을 보유한 인물로 묘사돼 있다.

무라미르 자에비치 교수는 “알파미시 최고본은 영웅의 행적을 문학상 높은 화려한 문장으로 그려내고 있고, 보석 같은 옛말이 수록돼 있는 고전”이라며 “구술을 기록했던 채록본이 없었다면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문화의 맥이 끊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베루니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현존 최고(最古) 알파미시 채록본.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 이태리가구 50% SALE

첫 파격세일 25일까지

소파, 식탁/좌탁, 라텍스 매트리스

쇼핑몰 [www.hong79.com](http://www.hong79.com)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엔틱식탁 100% MADE IN ITALY



모던소파 100% MADE IN ITALY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5% 어깨 15% 척추 60% 엉덩이 15% 허벅지 5% 종아리 5% 다리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던롭필로 삼사 라텍스 침대



친환경 원목가구 식탁,소파,침대

라텍스, 소파, 식탁 신상품 입점  
동구 장동 58-15 장동로터리 (구도청앞)

홍스페이스 1899-0240

숯불구이전문점

나는 **한돈**이다

KOREA PORK

## 대박나는 체인사업!! 부담없이 소자본으로 창업하세요

서두르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만이 대박사업의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최소의 소자본으로 대박신화를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  
• 가맹비, 로열티 일체없음  
• 인테리어 비용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최소금액 최소비용으로

**딱! 2백만 OK!!**  
타지않고 완벽하게 빠른시간안에 구입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숯불구이 전문점  
기름기 많은 오리와 삼겹살을 타지 않게 숙련에 구워  
내는 초 대박 숯불구이 아이템!!  
기름은 짜야- 빠지고 육즙은 그대로 살아있어 부드럽고  
고소한 숯불구이의 참맛을 느낄수 있습니다.

**한돈은?**  
품질좋은 국내산 돼지만 엄선하여  
사용하고 100% 진짜갈비와 삼겹살만  
취급하는 국내산전문점 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한돈으로 성공하실수 있습니다.  
• 우리 과정에서 사육되는 순수 국내산 정종 돼지만 매일 작업하여 취급하므로 타업체와 원자 비교 불가능합니다.  
• 본사에서 개발한 신개념 아이디어 숯불구이 기계는 원적외선이 사방에서 방출되어 2분만에 순간적으로 구워지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아주 좋고 인건비 절감효과가 탁월합니다.  
• 타업체중으로 진행시에 발생하는 비용중 가장 큰 금액인 간판과채비를 본사에서 지원해주므로 쉽게 업종전환을  
할수 있으며 입주에서 필요에 의해 리모델링할 경우 최소, 최저의 비용으로 할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 본사인 (주)사랑방유동은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외식 전문 업체로서 체계적이고 인성적인 체인점 관리와 물류를 책임집니다.

**파격지원  
간판교체비용**  
일체를 본사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광주지역내 10개 점포에 한정

취급매뉴	돼지갈비숯불구이(국내산) 250g
	삼겹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갈매기살숯불구이(국내산) 200g
	생 오 리소숯불구이(국내산) 200g
정심특선	갈비정식 5,000원 냉면 4,000원
	정량판매(1인분) 7,000원
	포장판매 take out 5,500원

체인점 문의 직통  
062-265-8900 011-803-2612

오지본점 5월 오픈 성공중!  
062-264-5343  
일곡점 OPEN  
062-573-5204  
교대점 OPEN  
062-526-6617